'한지등공예사업단' 관광두레 선정

〈익산고도육성·세계유산보전관리주민협의회〉

세계유산과 금마주민들 삶 연계활동 모색 등이 인정돼

(사)익산고도육성·세계유산보전관리주민협의회의 전통한지등공예사업단이 관광두레사업의 주민사업체로 선정되어 함께 한다.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총괄운영하며,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운송, 오락과 휴양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창업하고 자립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두레 사업은 2013년 3개 지역을 선정으로 현재 40개 지역에서 154개의 주민사업체수와 1,199명의 주민들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핵심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부처의 국가 또는 지자체 공모사업의 혁신을 꾀함으로써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다.

익산은 이광현PD가 발굴.지원하여 익산의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문화공감 '곶간', 편백에 살어리랏다라는 주제로 생태체험관광을 꿈꾸는 '두동편백마을' 백제의 문양을 통하여 익산을 알리는 '수나무공방'이 사업에 참여하여 상품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한지등공예사업단은 3~4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2010년부터 주민아카데미고도대학(문화재청, 익산시) 운영을 출발로 2014~2016년까지 매년 고도경관환경정화사업(문화재청, 익산시)으로 한지등공예제작 프로그램과 꽃길가꾸기를 운영하여 금마를 세계유산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썼으며, 세계유산등재 후 지역대표축제에 한지등을 활용한 야간경관조명활동에 참여하여 축제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으며, 자체 작품전시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세계유산과 금마주민들의 삶과 연계활동을 모색함 등이 인정받아 관광두레사업에 선정되었다.

우선 진행한 진단멘토링을 통하여 한지등공예전문가인 소진영멘토로부터 주민들의 한지등공예수준을 인정받았으며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하여 더욱 수준 높은 한지등공예 관광기념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역사문화재과는 '한지등공예사업단은 한지등공예체험 및 기념품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한지등을 활용한 야간경관조명과 세계유산과 연계한 야간 한지등 퍼레이드를 관광두레 이광현PD와 함께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코레일-익산시,익산역 환경정비

"익산시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최근, 코레일 전북본부, 익산역 임직원 등 30여명이 함께 휴일도 반납한 채 익산역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지난 2월 10일 KTX익산역 이용객에게 무료개방 된 익산역 서부주차장에서 실시됐다.

휴일과 주말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잡초와 각종 쓰레기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익산역과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익산시 첫인상을 심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계획되었다.

한편, 익산시는 서부주차장을 지난 2월 1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체결, 철도이용객에 주차 후 24시간 무료개방해 익산시민은 물론 인근 전주, 군산, 혁신도시, 서천군, 논산시 등 익산역 이용객들에게 철도이용 편익 제공 및 익산역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 문화재 현장행정

익산소방서는 석가탄신일을 대비해 1일 문수사 등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석가탄신일을 전후로 봉축행사 관련 연등설치 및 촛불사용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 사전점검 및 사찰 관계자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됐으며, 사찰 관계자들을 만나 사찰 주변의 화재취약 요인제거와 소각행위 금지, 연등설치 시 인증품을 사용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실무직근로자 노조 임금협약 체결

도로보수원, 도청 임금체계 적용 · 행정실무원, 기본급 인상 등 합의

군산시는 최근 군산시청열린노동조합과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시청열린노동조합과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실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200명의 대표노조인 군산시청열린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행정실무원의 경우 ▲기본급 인상 ▲32호봉제 적용 ▲근속수당 인상 ▲가족수당 및 현업수당 신설 ▲군복무 경력 적용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도로보수원은 ▲전북도청 임금체계 적용, 환경미화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인상률 적용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시측은 실무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조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시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시에서는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관계가 벌어졌던 도로보수원들과의 신뢰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도로보수원들의 호봉제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도청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등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소송과정에서 시와 도로보수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시와 도로보수원이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내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 의회로서도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오은정 노조위원장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시측에 감사드리고 우리 실무직근로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군산 방문

'먹방이와 친구들' 선포식 참석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가 1일 군산을 찾았다.

페논 대사의 이번 방문은 19세기 개항초기 군산세관의 프랑스인 라포테가 본국에서 데려온 반려견 프렌치 불독을 형상화한 캐릭터 '먹방이와 친구들' 선포식에 참석하여 프랑스와 군산의 문화교류 및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페논 대사는 이날 문동신 시장, 시의회의장, 새만금개발청장,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군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시의 산업, 관광, 축제 등 전반적인 소개와 새만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양국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시장은 "주한 프랑스 대사의 이번 군산 방문을 계기로 양국 도시 간 교류의 폭을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논 대사는 "도시 전체가 근대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영어 학습, 재학생이 이끈다

원광대, '어깨동무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 진행

원광대학교는 지방대학 특성화(CK-Ⅰ)사업 일환으로 2017학년도 1학기 '어깨동무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어깨동무 영어 튜터링'은 영어 실력이 우수한 재학생(튜터, 토익 800점 이상)과 영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그룹으로 만들어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토익 800점 이상인 튜터 1명과 신입생 4~5명을 1개 그룹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원광대는 선후배로 이루어진 학습공동체 지원을 통해 영어 학습과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오는 6월 2일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4월 말 사전 설명회를 갖고 프로그램 소개 및 사전테스트, 참가자 상견례를 비롯해 그룹별 시간표 작성, 학습 방향 협의 등을 마쳤다.

특히 사업을 주관하는 원광대 교양교육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어 학습의 기본이 되는 기초문법, 영어 읽기 지문, 어휘 학습 등 학습 가이드라인을 담은 워크북을 제공했으며, 토익 학습 요구가 있을 경우 토익 수업을 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총 15개 그룹이 구성된 가운데 튜터는 학습요구를 반영해 총 20시간의 튜터링을 수행한다.

원광대는 50명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교과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친밀한 환경에서 집중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어깨동무 영어 튜터링'이 영어 능력 및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함께 5명 내외의 소규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생생직업 체험교실' 참여학교 모집

초 4~6년 대상… 8~11일 접수

군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7년 생생직업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2017년 생생직업 체험교실은 군산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 20명 내외로 참여할 수 있고 참여 학생의 재량수업 편성 및 학교보험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학년별·반별로 지도 교사가 반드시 1명 이상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할 학생 수가 소규모인 초등학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타 학교와의 공동 참여로 진행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로, 접수방법은 참여를 원하는 학교별로 참여 신청서와 참여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여 공문으로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에 신청하면 되며, 참여학교 선정은 신청 기간 중에 공문을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다양한 직업 체험터를 모집 후 직접 방문한 결과 나포면 '웃담', 옥산면 '옥산한과' 및 '풍년보리심', 대야면 '볕뜰농원' 및 '도그랜드' 등 관내 장인 정신이 깃든 직업 체험터가 확보되면서 어린이의 장래 진로 탐색에 폭넓은 체험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군산=장현 기자

'가족이 행복한 공연' 관람자 가정 모집

12일 오후 6시까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8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진행되는 '제5회 가족이 행복한 공연'의 관람자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군산대 아동가족학과 학생들과 다문화가족 공연 팀이 무대를 준비했으며, 뮤지컬 '거인의 정원', 아동극 '알라딘과 요술램프', 율동 '다이노코어 오프닝', '돌고래 송', '다문화공연' 등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gunsanfc.familynet.or.kr),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443-53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장현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